

# 지구촌 선거의 해... '가짜뉴스 퍼펙트스톰' 쏟아진다

〈복합 악재 위기〉

대만 총통·美 대선 등 최소 83개 선거... 거짓정보·음모론에 혼란 우려  
러시아·중국 개입 시도 가능성... AI 기술 진화·극단주의 확산도 영향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가 역대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국가의 움직임, 극단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등이 맞물려 가짜뉴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행사인 선거가 거짓 정보와 음모론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향후 수십년간 영향을 미칠 주요 선거가 올해 예정된 가운데 가짜뉴스가 세계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대럴 웨스트 선임연구원은 "허위 정보의 퍼펙트스톰(여러 악재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한 큰 위기)"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정치·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컨설팅업체 앵커 체인지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83개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향후 24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선거다. 유권자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40억명을 넘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산도 있다. 1월에만 최소 7개의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중

13일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 관심이 쏠린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가짜뉴스와 군사 위협 등을 통해 총통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경고해왔다. 올봄 총선을 앞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AI 콘텐츠의 오도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열린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그의 극우 지지자들이 주도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NYT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한 민주주의가 대규모 이주,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전쟁 등 각종 도전에 직면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 대한 신뢰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인기영합주의자와 '스트롱맨' (독재자)이 국가 지도자로서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도 됐다. 러시아, 중국 등 독재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내부 정치적 불만을 이용해 민주적 지배 체제와 리더십을 훼손하려 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종종 허위 정보 유포도 지원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노력이 성공하면 각국에서 선거를 통해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부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미 대선을 포함해 다른 나라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레코디드퓨처의 브라이언 리스턴 분석가는 러시아 등이 선거를 사보 분열을 틈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 '진짜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외교전문가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2024년은 서방의 자유주의 지도층이 세계 질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양극화하며 전후적으로 변한 정치 환경은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를 낳고 유권자의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목소리 일부는 텔레그램, 비트썬 등 대안 SNS 플랫폼에서 힘을 얻으며 선거 정책과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AI 기술이 허위 정보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백인 유럽인을 비백인 이민자로 대체하려는 전 세계적인 음모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는 데 가짜 AI 이미지가 이용된 적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뉴스



美연방법원 도착한 트럼프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 미국 지난해 기후재난으로 122조 손실

대규모 재난만 28건...역대 최대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930억달러(약 122조원)에 달했다고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NOAA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피해 규모 10억 달러(약 1조 3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기후 재난이 28건 발생해 총 93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홍수와 폭풍 피해는 아직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대규모 기후 재난은 2020년의 22건을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 중에는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과 캘리포니아주 홍수, 미 중부에서 발생한 두 건의 토네이도 및 대형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이 포함됐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도 이어졌다. 지난해 미국 전체 평균 기온은 NOAA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높았다. 루이지애나·매사추세츠·미시시피·뉴햄프셔·텍사스 등 5개 주는 역대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냈다. 12월 한 달 평균 기온도 NOAA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NOAA 수석 과학자 사라 카프닉은 "지난해 끊임없이 벌어진 기후 재난의 맹공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기후 사례들이 기록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집단학살 논란' 이스라엘 국제 법정 출두

ICJ 전쟁 중단 명령 관측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이번 주 국제 법정에서 서게 된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학살(genocide)을 벌이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제소하면서다. 일각에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몇 주 내에 전쟁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J에서는 오는 11~1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첫 심리가 열린다. 1948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이 유엔에서 채택된 이래 이스라엘

이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 규정한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84쪽 분량의 소장에서 하마스의 근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집단의 본질적 부분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배나민 네다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쏟아낸 강경 발언을 8쪽에 걸쳐 소개하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멈추라는 임시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는 점이다. 남아공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인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 약 1200명의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학살하고 240여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았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마스 말살을 공언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후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선 2만3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들 대다수는 미성년자와 여성이라는 게 팔레스타인 측 주장이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의 제소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재판에 출두할 경우 결백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 '핑퐁외교' 앞장...미중 대학 탁구선수 상호 방문

미국과 중국 대학 탁구선수들이 양국 수교의 발판이 된 '핑퐁외교'를 되새기며 상대국을 방문해 인적교류의 힘을 불어넣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대 탁구팀은 미중 수교 45주년을 맞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버지니아대 탁구팀은 칭화대에서 열린 중미 청소년 탁구 교류 행사에 초청돼 중국 학생과 만났고, 상하이와 홍콩 등을 찾아 핑퐁외교의 역사와 양국 문화 차이를 공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베이징대 탁구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US 오픈 탁구대회에 참석한 게 계기가 됐다.

베이징대 탁구팀은 당시 탁구대회와 함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해 핑퐁외교 52주년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인민이 자주 교류할수록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핑퐁외교는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이 중국 선수단 초청으로 방중한 일을 칭한다. 당시 미국 선수들은 저우언라이 총리와 면담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방문해 중국 선수들과 교류함으로써 중국의 6·25전쟁 참전 이후 20년 이상 적대 관계이던 양국이 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